

완도군 청정바다 '신지도'

지킴이들 갯벌보호 나섰다

폐통발·폐그물 제거 및 낙지·석화 생태계 보호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의 신지도 청정바다 지킴이들이 갯벌 보호에 본격 나섰다.

지난 1일부터 5일간 신지도 청정 바다 지킴이 100여 명은 갯벌밭 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신지도의 갯벌은 신지 송곡에서 양촌리까지 6개 마을을 거쳐 약 8km이며 간조시에는 축구장 100여 개 넓이의 면적의 나타난다.

청정바다 지킴이들은 5일 동안 썰물때를 기다렸다가 무릎까지 빠

지는 갯벌을 헤치며 폐통발과 폐그물 10여 톤을 수거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했다.

신지 갯벌은 바다정화 작용은 물론, 물이 들어올 때는 주로 통발을 사용해 장어와 낙지를 잡고 썰물 때는 바지락, 석화를 채취해 소득을 올리는 바다 보물밭이다.

완도 신지도는 해양치유지원의 보고이다.

비단을 정화시켜주는 갯벌과 광

합성 작용을 하는 해조류가 있어 이

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고 있어 공기 비타민으로 불리우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친환경 해변에만 부여하는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11월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평가에서 전국 최고의 유품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주변은 바다 주변의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해양이어로풀, 해풀, 바닷풀, 갯벌, 해조류 등을 이용해서 최근에 만연되고 있는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헬스케어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헬스케어 선도 자체 선정을 계기로 갯벌의 오염원을 차단하고 꾸준히 청화활동을 실시하여 해양치유지원으로 보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행정안전부 재난

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나재철 방재담당 대통령 표창

무안군이 지난 1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1천500만원을 수상하였으며, 공직자 유공으로 안전총괄과 나재철 방재담당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와 교육부, 국방부 등 19개 중앙부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55개 공공기관 등 전체 3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기관을 우수·보통·미흡의 3개 그룹으로 나눠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과 보조금을 지급했고,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는 컨설팅을 실시한다.

평가에서 무안군은 재난업무 담당자의 개인역량을 비롯해 부서역량, 유관기관 사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역량, 기관장 리더십, 재해예방사업 투자실적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전남도 마을 숲 콘테스트 '우수상'

월가 장미마을 가로숲…주민 직접 2100여주 심고 가꿔

진도군이 제2회 전라남도 미을 숲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숲속의 전남 민들기 '제2회 전라남도 미을 숲 콘테스트' 조성 분야에서 군내면에 위치한 '월가 장미마을 가로숲'이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전라남도 미을 숲 콘테스트는 생활권 내 이름답고 매력있는 숲을 발굴해 숲의 소중함을 알리고 주민 스스로 가꾸는 주민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상을 수상한 '월가 장미마을 가로숲'은 2016년 숲속의 전남 민들기 사업에 공모해 조성한 숲

으로 마을앞 자투리땅(2,100m²)에 청년회원들이 직접 짚어 배롱나무 등 2,100여주 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꿔왔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숲속의 전남 민들기에 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적극 유도해 왔다"며 "이번 수상으로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숲 속의 전남 민들기를 통해 숲을 새롭게 조성하는 일과 함께 전통마을 숲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노력에 힘써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여수 낭만버스-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내년에 만나요”

8월부터 4개월간 39회…1535명 시간여행

시티투어·공연·이벤트 접목…탑승률 98%



여수 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평균 탑승률 98%를 기록하며 올해 모든 시간여행을 마쳤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지난 8월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매주 금·토·공휴일에 총 39회 운행됐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공연과 이벤트가 접목된 시티투어 프로그램으로 운행 첫 달부터 큰 인기를

끌며 4개월간 1535명 탑승이라는 기록을 올렸다.

탑승률은 운행 첫 달인 8월에는 100%, 9월부터 12월까지도 꾸준히 95% 이상을 넘으며 최종 98%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7월 주석 연휴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문의가 빗발치며 7일 동안 전 좌석이 매진되기도 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의 가장

큰 매력은 시티투어와 연극, 문화 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주제는 낭만버스 안에서 세 요정이 벌이는 사랑 이야기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마법의 요정 역할을 맡고, 시간의 요정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연극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악기의 요정은 버스커 공연을 한다.

공연 외에도 사랑의 세레나데, 낭만엽서 보내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탑승객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부모님의 환갑·칠순을 축하하기 위한 3대 여행, 중년부부의 프러포즈, 여자 친구의 청혼 등 여러 사연들이 낭만버스와 함께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운영기간을 5월에서 10월까지로 늘릴 계획"이라며 "탑승률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 프로그램에 반영해 더욱 수준 높은 공연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여수 중앙시장 청년몰 추진위원회 첫 '가동'

위원 11명 내년 12월까지 주요안건 심의·의결

여수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 단과 함께 (주)중앙시장에 쇼핑·문화·체험 등 테마공간을 조성할 추진위원회가 가동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5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첫 '여수 중앙시장 청년몰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추진위원회 위원 1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사업주체로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종군 팀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박성진 과장, 박문규 (주)중앙시장 상인회장, 박정호 청년 몰 사업단장, 향후 선정될 청년몰



상인회 대표 등이 활동한다.

또 김병호 (주)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전남대 박석강 교수, CI헬로비전 아리방송 윤태현 총괄PD, 여수지역건축사회 정집문 건축사, 관광두레 정태균 PD 등 5명은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다.

여수=송기홍 기자

'찰떡궁합 우리는 힘' 장흥군 다문화가족 부부교육

일상생활 부부대화 예로 들어 참가자 공감 이끌어내

장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2일 1회기는 레크리에이션으로 부부간 스키춰프 친밀감형성, 29일 2회기는 미술 및 도형심리를 통한 상대방 미음 읽고 존중하기, 12월 1일 3회기는 영화감상을 통해 교육으로 상호별 대처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서는 남자언어와 여자언어에 대해 각종 일상생활의 부부대화를 예로 들어 생생하게 표현해 참가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교육 활동을 통해 부부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도와주는 작업을 하며 가정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표현해보는 소통의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장흥=김종민 기자

화순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화순군민 여러분! 화순은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입니다.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화순은 청정한 자연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화순군민 여러분! 화순은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입니다.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화순은 청정한 자연과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지역입니다.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